

RESEARCH ARTICL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on school life adjustment: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 Focusing on middle school students in N City

Ahn, Minhyeok¹ · Ahn, Seyun^{2*}

¹Master's Course,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eneral Graduate School, Konyang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Therapy, Konyang University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N시 중학생을 중심으로*

안민혁¹, 안세윤^{2*}

¹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상담전공 석사과정, ²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counsel2005@konyang.ac.kr



OPEN ACCESS

Citation : Ahn, Minhyeok & Ahn, Seyun.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on school life adjustment: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 Focusing on middle school students in N City. Journal of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31, 85-95.

DOI: <https://doi.org/10.12972/mpca.20240008>

Received: May 7, 2024

Revised: June 23, 2024

Accepted: June 25, 2024

Copyright: © 2024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basic data for understanding emotional change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proc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counseling and education fields by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school life adjustment, focusing on middle school students. It has been done.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on 389 middle school students located in N City, and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s, and mediation effects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and Model 4 of PRECESS Macro. The research results First, positive parenting attitude and school life adjustment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 and school life adjustment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Second, self-esteem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effect of positive parenting attitude on school life adjustment. Third, self-esteem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impact of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on school life adjustment, but caution is needed in interpretation due to low explanatory power, so groups according to self-esteem level (top 25%, middle 50%, bottom 25%), and as a result of additional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each group's negative parenting attitude may have different effects on school life adaptation depending on the individual's level of self-esteem.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Middle school students, parenting attitude, school life adjustment, self-esteem

* 본 연구는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논문임.

I. 서론

청소년 시기는 신체·심리·정서·사회적으로 급격한 성장 발달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발달 시기이다(Park & Lee, 2014). 특히 초기 청소년 시기인 중학생 시기는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심리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가정과 학교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또래 친구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학교생활의 적응은 중학생들의 건강한 발달에 있어서 영향력을 가진다(Kim & Ahn, 2013). 학교생활적응은 교사 및 또래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학교수업에 잘 적응하고 학교의 규칙을 잘 준수하여 학교생활에 만족을 느끼며,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Ki & Kim, 2014). 학교생활적응을 통해 청소년들은 교사·교우들과의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정체성을 인정받고 사회화되며(Cha, Kim, & Lee, 2020), 성공적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들이 심리적 독립의 과업을 완성하도록 돕고, 올바른 가치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준거의 틀로서 작용한다(Lee & Park, 2017).

학교생활적응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로 학업중단을 살펴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어려움은 학업중단 현황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2023년도 교육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전체 학생의 학업중단자 수는 2017년 0.6%, 2018년 0.7%, 2019년 0.8%(10,001명)로 초기 청소년의 학업중단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학교생활적응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Kim, 2019).

학교생활적응과 영향을 주고받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삶의 만족도, 대인관계, 스트레스 수준, 자아탄력성 등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되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중 상당수가 가정환경 및 부모와의 관계 등에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생활적응은 가정환경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Lyu, 2003).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요인들로는 가족 구조의 특성, 부모의 유무,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 등이 있다고 보고되는데(Kim & Jung, 2012), 특히, 부모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이자 반응양식이며,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심리적·물질적으로 도와주는 행동양식으로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다(Lim & Myung, 2016). Kwon과 Kim(2011)의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 수용적, 애정적, 자율적, 민주적으로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반면, 통제와 간섭, 강압적, 적대적, 방임적으로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Kim과 Hong(2015)의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인 경우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지고, 부정적인 경우 학교생활적응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적응을 연구함에 있어 가정환경적 요인인 부모양육태도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Ko, 2017).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개인내적 요인으로서 개인의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면서 동시에 결과변인으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Kim & Hong, 2015). 즉 학교생활적응을 잘 할수록 자아존중감의 상승을 예측할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Yoon과 Hur(2017)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중단연구에서는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나타내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상관을 뒷받침한다. Kim과 Jung(2012)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학습활동 및 학교규칙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쳤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또래집단과 교사와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스스로에 대한 가치이해로부터 전생애적 삶의 태도를 예측하게 하는 자아존중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양육태도가 보고되어 왔다. Lee와 Han(2022)의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이 그들의 부모로부터 긍정적 양육을 받는다고 인식할수록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며 유능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결과와 더불어,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부모양육태도는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Ka, Cho와 Lim(2008)의 선행연구를 통해,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높은 자아존중감 형성을 예측하는데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Ryu(2010), Kim과 Hong (2015)의 선행연구에서도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써 작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N시 지역의 중학생을 중심으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상담과 교육 현장에서 중학생의 발달 과정에 따른 정서적 변화에 대해 이해를 돕는 근거 자료로서, 학교생활적응의 수준을 예측하고, 중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학교 및 가정 상황들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예방적 차원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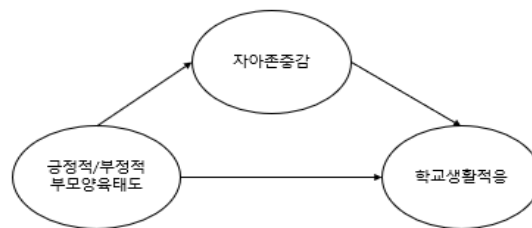
1-1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1-2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2-1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2-2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조사는 N시에 위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설문지(온라인, 오프라인)를 통한 응답으로, 각 학교에 설문을 의뢰하여 수업시간 중 교사의 지도 아래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2년 7월 15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하였다. 불성실한 응답 등의 결측값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결과분석에 사용된 설문대상은 총 389명으로 이 중 남학생이 160명(41.1%), 여학생이 229명(58.9%)이었다.

2. 연구도구

1) 부모양육태도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는 Skinner 등(2005)이 개발한 청소년용 PSCQ_A 24문항을 번안 타당화한 것으로 따스함, 거부, 자율성 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밀관성의 6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따스함, 자율성 지지, 구조제공의 요인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부, 강요, 비밀관성의 요인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 .61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양육태도 .92(따스함 .93, 자율성지지 .90, 구조제공 .76), 부정적 양육태도 .89(거부 .80, 강요 .72, 비밀관성 .80)로 나타났다.

2) 학교생활적응

임정순(1993)의 학교생활적응 척도에서 학교수업, 학교규칙, 교사관계, 교우관계 영역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하위변인 중 학업적 적응은

학교수업 영역의 6문항을 사용하였고 문항의 내용은 학교 수업 이해도 및 만족도와 참여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행동적 적응은 학교규칙 영역의 6문항을 사용하였고 문항의 내용은 실내정숙, 좌측통행, 당번활동, 시설물 사용, 쓰레기 버리기, 질서 지키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규칙을 준수하는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적응(교사)은 교사관계 영역의 6문항을 사용하였고 문항의 내용은 학교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또는 친밀도에 관한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선생님과과의 관계가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적 적응(도래)은 교우관계 영역의 6문항을 사용하였고 문항의 내용은 학교 친구들과의 친밀도 및 신뢰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들과와의 관계가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 각 하위변인들의 신뢰도는 학업적 적응 .73, 행동적 적응 .62, 사회적 적응(교사) .69, 사회적 적응(도래) .78 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84으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척도로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부정문항으로 진술된 다섯 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6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방법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3.0과 SPSS PROCESS Macro 4.2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합치도계수(Cronbach's α)를 확인하였다. 둘째, 기술통계를 통해 각 변수의 경향성을 확인하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자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제안한 PROCESS Macro Model 4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샘플 5,000개, 신뢰구간 95%수준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자료의 정규성 확인을 위해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절댓값을 기준으로 왜도의 값이 2를 넘지 않고, 첨도의 값이 7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 가정이 충족(Finch & West, 1997)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변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는 평균 3.11(SD=.32), 학교생활적응은 평균 3.33(SD=.48), 자아존중감은 평균 3.23(SD=.37)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해 주요 변인 간의 상관 정도를 긍정적/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주요 변인 간의 상관 정도를 확인하였다.

먼저,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학교생활적응($r=.45, p<.01$)과 정적상관, 자아존중감($r=.21, p<.01$)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학교생활적응($r=-.12, p<.01$)과 부적상관, 자아존중감($r=.09, p<.05$)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부정적 부모양육태도($r=-.61, p<.01$)와 부적상관을 보이며, 전체 부모양육태도는 학교생활적응($r=.37, p<.01$), 자아존중감($r=.35, p<.01$)과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r=.43, p<.01$)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표 1> 주요 변인 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N=389)

구분	1	1-1	1-2	2	3
1. 부모양육태도	1				
1-1.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42**	1			
1-2.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45**	-.61**	1		
2. 학교생활적응	.37**	.45**	-.12**	1	
3. 자아존중감	.35**	.21**	.09*	.43**	1
평균	3.12	3.90	2.33	3.33	3.23
표준편차	.32	.73	.74	.48	.37
왜도	1.13	-.62	.72	.42	.79
첨도	5.09	-.20	.54	.03	2.58

* $p < .05$, ** $p < .01$

2.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1)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첫째, 자아존중감에 대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의 회귀모형이 유의하게 나타났다($F=22.93$, $p < .001$). 모형의 설명력은 4%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1$, $t=4.78$, $p < .001$). 이는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를 지각한 중학생이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의 회귀모형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119.40$, $p < .001$), 모형의 설명력은 20%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5$, $t=10.92$, $p < .001$). 이는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로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이 적응적임을 의미한다. 셋째,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F=111.26$, $p < .001$), 모형의 설명력은 32%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쳤으며($\beta=.37$, $t=9.58$, $p < .001$), 자아존중감도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5$, $t=9.05$, $p < .001$).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 또한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이 포함되었을 때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45에서 .37로 변화되는 것이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이 지각한 자아존중감이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표 3>과 같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간접효과 경로에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표 2>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비표준화 계수		t	R^2	F
			B	SE			
(매개) 자아존중감	(독립)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21	.11	.02	4.78	.04	22.93***
(종속) 학교생활적응	(독립)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45	.30	.02	10.92	.20	119.40***
(종속) 학교생활적응	(독립)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37	.25	.02	9.58	.32	111.26***
	(매개) 자아존중감	.35	.46	.05	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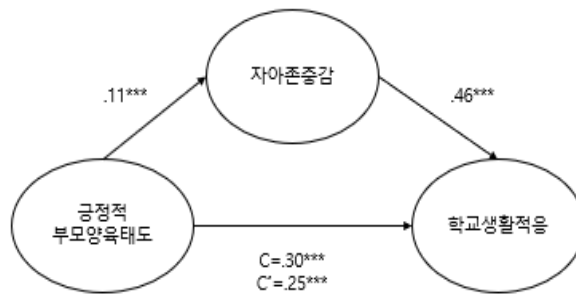
*** $p < .001$

<표 3>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효과

경로	B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30	.02	.24	.35
직접효과	.25	.02	.19	.30
간접효과	.05	.01	.02	.08

LLCI=Bootstrap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ULCI=Bootstrap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그림 2>**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모형

2)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첫째,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의 회귀모형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F=4.19, p<.001$), 모형의 설명력이 0.9%로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나 실제적으로 의미는 영향력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0, t=2.04, p<.001$). 이는 중학생이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를 지각하더라도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의 회귀모형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F=8.90, p<.001$), 모형의 설명력이 1%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학교생활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8, t=-2.82, p<.001$). 이는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를 지각하면 학교생활적응이 부적응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를 나타냈으며($F=84.12, p<.001$), 모형의 설명력은 22%로 나타났다.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18, t=-3.98, p<.001$), 자아존중감은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5, t=10.93, p<.001$).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자아존중감은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이 포함되었을 때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12에서 -.18로 변화하는 것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95% 신뢰구간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표 5>와 같이 부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간접효과 경로에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모형은 <그림 3>과 같다.

<표 4>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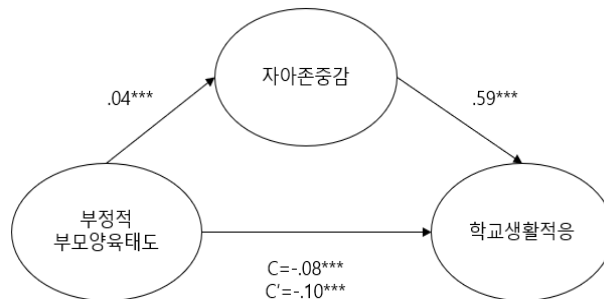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비표준화 계수		t	R^2	F
			B	SE			
(매개) 자아존중감	(독립)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10	.04	.02	2.04	.009	4.19***
(종속) 학교생활적응	(독립)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12	-.08	.03	-2.82	.01	8.90***
(종속) 학교생활적응	(독립)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18	-.10	.02	-3.98	.22	84.12***
	(매개) 자아존중감	.45	.59	.05	10.93		

*** $p < .001$ **<표 5>**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효과

경로	B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08	.03	-.13	-.02
직접효과	-.10	.02	-.16	-.05
간접효과	.02	.02	.01	.07

LLCI=Bootstrap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ULCI=Bootstrap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그림 3>**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모형

3)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자아존중감 집단별)

앞서 결과에서 제시된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의 회귀모형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의 회귀모형이 유의미하지만, 각각의 모형의 설명력이 낮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해석을 위해 자아존중감을 상위 25%, 중위 50%, 하위 25%의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집단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중, 해석과 관련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집단으로, 자아존중감 상위 25% 집단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 상위 25% 집단 대상,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의 회귀모형이 유의하게 나타났고($F=25.35$, $p < .001$), 모형의 설명력이 20%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4$, $t=5.03$, $p < .001$). 둘째,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의 회귀모형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24$, $p < .001$), 모형의 설명력이 1%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4$, $t=.49$, $p < .001$). 셋째,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를 나타냈으며($F=12.41$, $p < .001$), 모형의 설명력이 20%로 나타났다.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17$, $t=-1.73$, $p < .001$), 자아존중감은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9$, $t=4.95$, $p < .001$).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이 포함되었을 때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04에서 -.17로 변화하는 것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표 7>와 같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간접효과 경로에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모형은 <그림 4>와 같다.

<표 6>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자아존중감 상위 25% 집단)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비표준화 계수		t	R^2	F
			B	SE			
(매개) 자아존중감	(독립)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44	.15	.03	5.03	.20	25.35***
(종속) 학교생활적응	(독립)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04	.02	.05	.49	.01	.24***
(종속) 학교생활적응	(독립)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17	-.09	.05	-1.73	.20	12.41***
	(매개) 자아존중감	.49	.82	.16	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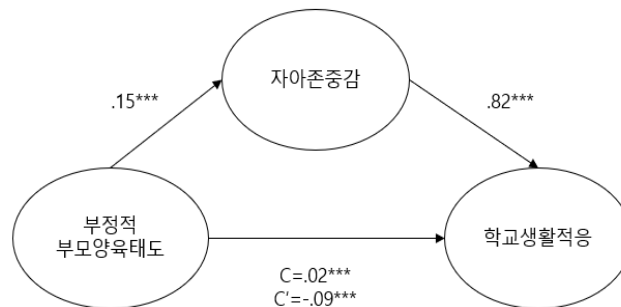
*** $p < .001$

<표 7>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효과 (자아존중감 상위 25% 집단)

경로	B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02	.05	.08	.13
직접효과	-.09	.05	-.20	-.01
간접효과	.12	.05	.03	.22

LLCI=Bootstrap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ULCI=Bootstrap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그림 4>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모형 (자아존중감 상위 25% 집단)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N시 지역의 중학생을 중심으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긍정적-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관된 선행연구들과 더불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부적상관, 학교생활적응과는 정적상관을

자아존중감과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은 부적상관을 나타내었고, 자아존중감과 관계에서는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나 유의미한 효과가 크지 않아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정적상관이 유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이는 Lim과 Myung (2016)의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심리적·물질적으로 지원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더불어 Ko (2017)의 연구에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의 정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을 조절한다는 결과의 맥락에서 부모양육태도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Lee와 Han (2022)의 선행연구에서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모로부터 긍정적 양육을 받는다고 인식할수록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며 유능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정적상관이 나타난 것은 중학생의 발달적 특징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청소년 초기로 볼 수 있는 중학교 재학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동시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급이 전환되어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와 환경도 변화한다(Lee, 2022). 또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경향이 생겨 혼란스러운 시기(Lee와 Han, 2022)로서 다른 변인들이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작용하여, 상관이 미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Nahm (2008)은 자아존중감이 정확한 자아개념에 기초하는데, 자아개념의 특징 중 하나가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동일한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개인마다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청소년 초기 중학생의 발달적 특징과 자아개념의 특징으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인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과의 정적 상관을 유의미하게 해석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4%, 학교생활적응을 20%로 설명하며,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로 지각한 N시 중학생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학교생활적응이 적응적일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포함하였을 때, 자아존중감이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과 Hong (2015)의 선행연구에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의 수준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써 작용한다는 결과를 뒷받침하며,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부적 영향을 미쳐 학교생활적응을 조절한다는 Ka, Cho와 Lim (2008)의 선행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0.9%, 학교생활적응을 1%로 설명하며,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로 지각한 N시 중학생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학교생활적응이 부적응적일 수 있음을 나타냈다. 즉,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를 지각한 중학생은 자아존중감이 높더라도 학교생활적응에 부적응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이 포함되었을 때 자아존중감이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각에 대한 낮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어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자아존중감 집단을 상위 25%, 중위 50%, 하위 25% 로의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추가로 분석한 결과, 각 집단의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개인의 자아존중감 정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자아존중감이 상위 25% 집단은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아존중감이 매개함으로써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으며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는 영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Cohen et al. 2003).

넷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긍정적/부정적 부모양육태도의 경우에 따라 결과의 차이를 보인다.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경로에서는, 자아존중감이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부분매개함으로써,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높을 때 자아존중감이 높고 학교생활적응이 적응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경로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부분매개함으로써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높을 때 자아존중감이 높고 학교생활적응이 부적응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각각의 과정에서 낮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어 청소년 초기 중학생의 발달적 특징과 자아개념의 특징으로 인해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다른 변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기에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N시 중학생을 중심으로 부모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의 경로로 나누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상담과 교육 현장에서 중학생의 발달 과정에 따른 정서적 변화에 대해 이해를 돕는 근거 자료로서, 학교생활적응의 수준을 예측하

고, 중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학교 및 가정 상황들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예방적 차원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N시 지역의 중학생 즉 단일 지역의 중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중학생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용이하도록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대상자를 표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에 있어서 낮은 설명력을 나타냈기에 해석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 본 연구의 모형 혹은 관련된 모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다면 본 연구결과를 새로운 이론적 근거로서 활용 가능할 것이다.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중심으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상담·교육 현장에서 중학생의 발달 과정에 따른 정서적 변화의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의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N시에 위치한 중학교 재학생 38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SPSS 23.0과 PRECESS Macro의 Model4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으나, 낮은 설명력으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여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집단(상위25%, 중위50%, 하위25%)으로 구분하고 추가분석결과, 각 집단의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개인의 자아존중감 정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중학생,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참고문헌

- Baumrind, D.(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 56-95.
- Cha, H. S., Kim, J. I., Lee, H. S. (2020).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and School Adaptation of Youth*.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17(4), 41-55.
- Cohen, J. & Cohen, P.(1975).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New York, NY: Wiley.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F: W. H. Freeman.
- Goo, S. J., Song, M. K. (2018).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on Interpersonal Anxiety in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4(1), 1-21.
- Ka, Y. H., Cho, M. J., Lim, S. W.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Rearing Attitudes,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6(4), 31-42.
- Kang, J. Y. (2019). *Influence of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xpression, and Family Strengths on Adaptation of School Life in Adolescent*.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ahmyook University.
- Ki, M. H., Kim, M. S. (2014). *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Overprotection, Children's Ego-resilience and School Life Adjustment: Focused on 4th, 5th and 6t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014(29), 585-612.

- Ki, S. J. (2012).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Focused on the Deduction of the Political Implicatio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JKSCI), 17(5), 127-136.
- Kim, S. N. (2019).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Ordinances for Youth Support Outside School -Focusing on local governments enacted and revised in 2019-*. Social Welfare and Law Journal, 10(3), 173-195.
- Kim, Y. C., Jung, M. S. (2012).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Social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3), 51-70.
- Kim, J. H., Ahn, G. Y. R. (2013). *The Effects of Parents' Rearing Attitudes a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for School Adjustment: Self-Regulation as a Mediating Variabl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Kor. J. Psychol.: Health), 18(4), 823-836.
- Kim, H. J., Hong, S. H. (2015). *The Mediating Effects of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6(1), 413-429.
- Ko, M. S. (2017). *The Effect of Adolescents' Emotion Problem on School Adjustment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arental Attitude &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cognitive Enhancement and Intervention, 8(1), 89-104.
- Kwon, Y. J., Kim, Y. H. (2011). Effects of Family Functioning & Adolescents' Self- Regulation on Online Game Overflow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6), 99-121.
- Lee, M. R., Park, B. H (2017).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Externalizing problems, Internalizing problems, Achievement Value, and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 517-535.
- Lee, S. Y. (2022).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Adolescents,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pplication of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4(3), 49-65.
- Lee, W. R., Han, C. W. (2022).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Enthusiasm and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ositive Parental Attitudes and Self-Esteem for Middle School Student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9(9), 53-81.
- Lim, S. H., Myung, J. S. (2016).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that perceive Adolescents Impact on self-esteem : Mediated effect of ego-resilience*.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3(12), 327-347.
- Lyu, G. H. (2003). *Family-Related Variables Affecting Adolescents' School Life Maladjustment*. Human Ecology Research(HER)(Hum. Ecol. Res.), 41(12), 147-168.
- Nahm, I. S. (2008). *The Usefulness of Positive Self-esteem in Prevention on School Bullying*. Korean Journal of Social Theory, (33), 135-165.
- Park, J. H., Lee, M. S. (2014). *The Effects of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on Depression in Their Transitional Period :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Support, Parental Monitoring, and Peer Support*. J.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2(3), 45-63.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yu, K. H. (201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 and Environment upon Adolescents' School Life Adaptation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respec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 Schaefer, E. S.(1959).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2), 226-235.
- Tiggemann, M(2005). *Body dissatisfaction and adolescent self-esteem: Prospective findings*. ELSEVIER SCIENCE B.V. AMSTERDAM, 2(2), 129-135.
- Yoon, J. Y., Hur, E. J. (2017).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of the reciprocal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efficacy student's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in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3(6), 775-798.
- Korean Education Statistics Service (2023). 2017~2019 Dropout rate of school. From <https://kess.kedi.re.kr>